

환율 단일화와 중국 시장 환경의 변화

林 鎮 國*

중국은 금년들어 환율 단일화 조치와 아울러 제반 대외 거래 및 세제에 관한 제도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GATT 재가입을 목표로 하여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다. 이에 따라, 94년중 중국 경제는 지속되어 온 물가 불안과 증첩되어 제도 개혁에 따른 파급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중의 단기적 불안정성은 향후 중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지를 試金石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금년중 중국 경제의 시장 경제화 과정 속에서 보여줄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환율 단일화 조치 내용

중국인민은행은 93년 12월 29일 “中國人民銀行關於進一步改革外匯管理體制的公告”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94년부터 공식 환율과 외환조절시장 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존의 환율 체계를 변경하여,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환율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외환권(FEC)의 발행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간의 외환 시장을 개설하여 환율의

시장 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율 제도는 ‘통제된 단일 변동 환율제’라 지칭된다. 人民銀行은 외환 수급 조정을 통화량, 이자율 조절에 의존하는 간접 규제 방식을 따르며, 외환 시장 감독을 외환 관리국을 통해 실시토록 하였다.

외환 관리 제도의 개방화

지금까지 중국내 기업에게 허용되어 온 외화 유보 제도가 금년부터 폐지되며, 모든 기업 및 기관은 보유 외환을 국가 지정 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외환 매입시에는 수입 계약서와 해외 기관의 외환 지불 서류 등을 제시하고 직접 지정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중국내 외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외환 관리 규정은 변동이 없다. 다만, 개인의 외화 수입은 은행 구좌를 개설, 예치나 매각을 완전히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외환권 발행은 중지되나,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외환권은 당분간 사용이 허용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허가 받아서 직접 매매에 참여하던 주요 도시의 개별 외화 조절 시장을 폐쇄하고, 上海에 은행간 외환 거래 시장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초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주요 화폐의 변동 사항을

* 책임연구원, 고려대 경제학 석사, 국제경제 전공.

참조로 하여 익일 환율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은행간 외환 시장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의 외환 조절 시장도 당분간 그대로 운영될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홍콩 달러화 등의 외환 유통을 금지시킨 조치인데, 廣東省 등 남부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제력 회복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조치의 배경과 효과

이번 조치의 배경은 이중 환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GATT 재가입 추진 및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외환 관리 제도의 정비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이중 환율제에 따른 폐해는 ①외환 유보 제도 실시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수출 의욕 저하, ②환율의 불규칙한 변동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위험 증가, ③외국 투자업체의 투자 위축, ④외환의 부정 반출 증가 등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GATT의 비회원국으로서 불평등하게 취급 당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GATT 재가입으로 현재의 수입 쿼터제가 풀리면, 유럽과 미국의 섬유 시장에 중국 제품을 대량 수출할 수 있고, 노동력과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내 내수 산업 관련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실효 관세율 22.5%에서 GATT가 규정하는 15%까지 인하해야 한다.

GATT에 가입하려면 수입품의 관세율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양허표를 작성, 既가입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의 수입 관세를 종래의 1/2로 인하하는 등 관세율의 대폭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다. 양허표는 이른바 국제 공양이며 관세 제도를 어느날 갑자기 바꿔 버리는 사회주의식 대응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만큼 중국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한편, 각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자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GATT는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 부여한 혜택은 중국에도 부여해야 한다.

중국은 서방 제국이 추구하고 있는 對中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가드)을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수용할 방침이지만, 이 제도를 언제 폐지하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입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이 인권 문제의 현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難題가 되고 있다.

관세 인하 및 수입 규제 완화 조치

中國海關總署는 93년 11월 17일 2,898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 인하를 발표하고, 12월 30일에 농약, 농약 중간체 등 농업,공업과 관련된 중요 원자재 및 현재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중요 기전 제품의 부품 등 23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관세율 인하하였다.

이는 금년부터 도입된 환율 단일화가 수입 상품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항공기, 과일 등 모두 283개 품목을 수입 허가 및 쿼터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무역 체제를 점차 자유화하고 특히 자국의 비밀 무역 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미국과의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조치의 파급 효과

우선 중국 수출입 공사나 국영 기업이 그간 공식환율로 수입할 수 있던 정부의 보조가 중단된다. 특히, 경쟁력이 없는 국영 기업의 경우 환율의 대폭 절하에 따른 수입 부담의 증대로 결제 불능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공식 환율에 의한 관세율이 시장 환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가 품목별로 다양하게 가시화될 것이다.

한편, 기업이 개인의 외환 거래 자유화는 중국의 수입 대금 결제 관행을 보다 국제화시키고, 동시에 수입 수요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환율 절하에 따른 중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元貨 환율에 대한 전망

금년초 元貨 시세는 정부 공식환율 5.8元/\$, 스와프 환율 8.3 - 8.7元/\$에서 새로운 변동 환율 8.7元/\$에서 시작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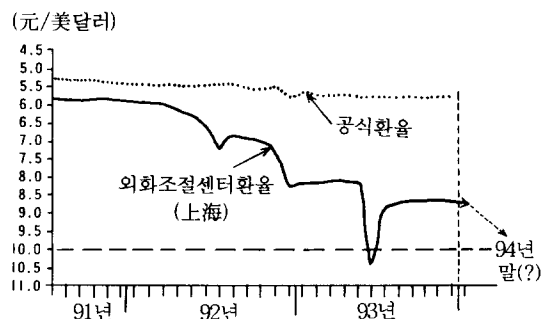
현재 시장의 대부분 수입 상품은 외환 조절 시장 환율로 구입한 상품이므로 환율 단일화가 급격한 수입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대폭적인 수입 관세의 인하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 수입 원가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 인하 및 수입 규제 완화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가 인민폐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 억제 효과를 상쇄시키고, 중국 자본의 국제 자본시장 진출이 급속한 외자 유입에 따른 중국 경상 및 자본수지 불균형에 따른 중국내 통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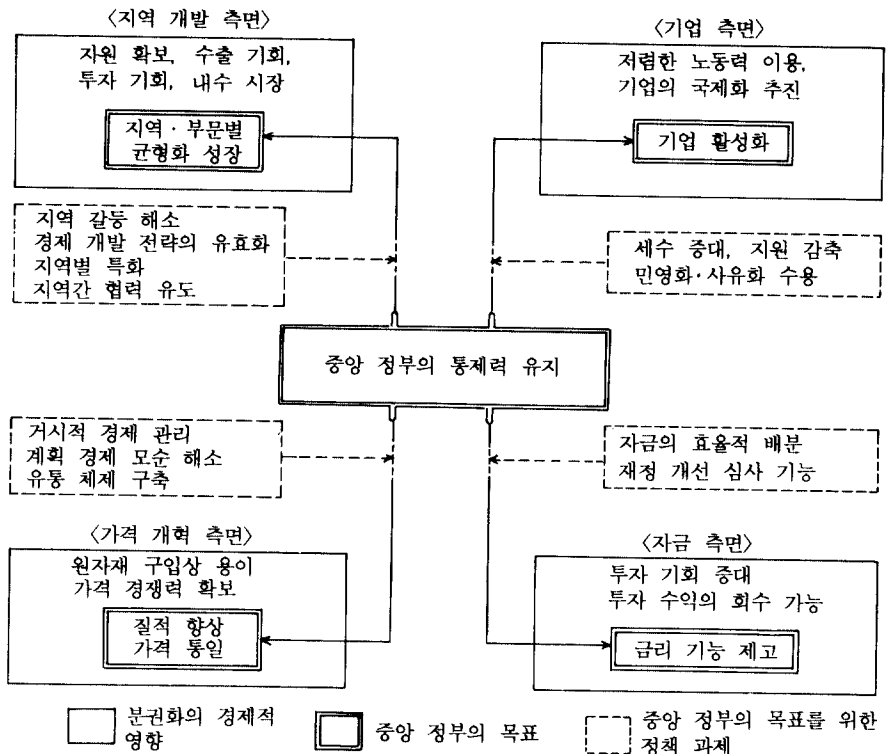
금년중 元貨 환율을 전망해 볼 때, 현 元貨의 환율 수준에서 가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튼계량경제연구소의 자료(94년 1월호)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약 10%의 평가 절하를 보일 것이라 전망되었다.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 볼 때, 元貨 환율은 10元/\$을 상한선으로 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암시세가 10元/\$ 정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평가절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반면 그 이상의 평가절하는 중국 정부가 경제 충격을 원치 않고, 국가적으로 안정 추구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환 시세 안정을 위한 적극 개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중국 元貨의 환율 추이와 전망



<그림 2> 중국 중앙정부의 당면 과제



또한, 元貨의 對香港 달러화 교환 비율을 현 을 시행하였다.
 재의 1:1.13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이
 있다는 것이 현지의 공통된 관측이다. 1)

경제 대개혁의 단행과 정부 정책

중국 정부는 환율 단일화와 함께 94년들어
 ①중국 국내 기업 소득세율 33% 단일화, ②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내외자 기업 통
 일 부과, ③개인 소득세율의 내외국인 단일화,
 ④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과 개시 등의 조치들

1) 지역정보자료 93-2,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3.
 3. 8) 참조.

거시 경제적 배경

이러한 조치들은 작년 11월에 열렸던 공산
 당 제14기 3중전회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지속 성장의 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제
 및 금융, 무역, 투자 분야의 제도 개혁을 가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일부 경제 권한의 중앙 집권
 화, 경제의 균형을 위한 시장 기구 역할 제
 고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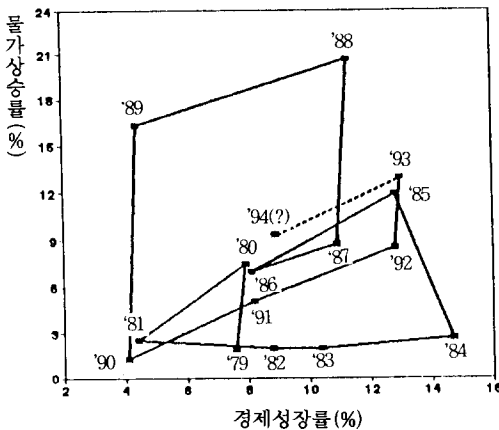
먼저 경제 권한의 중앙 집권화 및 지역간
 경제 격차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
 다. 지방 정부가 총세수의 80%를 차지하면서

재정 고갈 상태에 빠진 중앙 정부는 기간 산업 확충 등 기초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려야 할 입장이었다. 반면, 지방 정부는 곡물에 대한 구매 자금을 유용, 개발 경쟁을 벌여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중앙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그림 2>와 같다.

작년 중반이후 중국 경제의 조정은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재정, 금융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그림 3> 중국 성장-인플레이의 추이 및 전망



해결되지 않았다. 三角債의 재발, 소비 과열의 현상도 우려되었다. 아직 물가 불안이 상존해 있어 지표상으로 물가가 진정될 때까지는 경제 전반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93년중 중국의 대외 거래는 비록 수출 신장세 급감소와 수입 급신장,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경제 과열에 의한 수입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중국내 외자계 기업의 대외 수지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수지	총무역수지
'92	173.6 (20.4)	63.9 (32.7)	-90.3	44.0
'93	252.4 (27.5)	418.3 (40.2)	-165.9	-121.8

주: () 안 수치는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외자계 기업의 수출입 비중(%)임.

왜냐하면, 무역수지의 적자 요인이 外資系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따른 수입 수요 급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94년에는 이들 외자계 기업들의 수출 증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입 급증이 관세율 인하에 기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환율의 평가절하로 수입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파급 효과

먼저 중국내 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외자 기업에 대한 투자 우대를 축소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増値稅의 도입은 외자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품목별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소득세의 내외국인 단일화로 본사 파견 직원의 이중 과세 문제를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對中 수출

한국의 對中 수출에서 80% 이상이 외환조절시장 환율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단일 환율이 실제 이전의 외환 조절 시장 환율

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한국의 對中 수출에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중점 설비의 경우에는 평가절하 효과에 의해 對中 수출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

중국의 외환 관리 방식이 완화되어 수출대금회수 등이 다소 용이해지고, 이번 조치 이후 중국의 공산품 관세인하 조치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계·전자 등을 중심으로 對中 수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금년말까지 元貨 환율이 10元/\$까지 절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정확한 환율 예측에 힘쓰고, 이를 수출 계약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외환 체제 개혁이 GATT 가입과 함께 중국 시장 개방을 촉진시켜 한국의 對中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對中 투자

한국의 對中 투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투자한 기업은 인민폐 평가가 이전의 공식환율 평가보다 높아지고 신규 투자 업체도 등록 자본은 공식 환율로 환산하고 과실송금은 시장 조절 환율을 적용하는 모순이 해결됨으로써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투자 기업들이 과실 송금액을 직접 외국환 은행에서 매입하여 송금할 수 있게 된 데다가, 중국내에서 취득한 元貨를 필요시 외국환 은행에서 수시로 매입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외환수지 평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외화 송금이 종래 코레스 계약으로 중국은행의 외화 태환권 구좌를 통해 가능하였으나, 이 구좌가 폐쇄됨에 따라 정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에 적용되는 모든 요금과 물가가 元貨의 단일화와 함께 대폭 인상되어 평가절하의 수익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韓中間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의 파견 직원 급여에 대한 이중 과세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한편,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내 내수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원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또, 외자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외국 투자자의 현물 투자, 투자 총액이나 자본 증가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기계 설비 및 수출용 원자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크고 현지 자금 조달에 의한 투자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기계 및 물품 수입과 사무용품 및 각종 소비재 물품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 인하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이를 상쇄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단일화 조치후 元貨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중국 내수 비중이 낮고 수출 비중이 큰 투자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對中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경우 향후 인플레이 진행에 따른 元貨 가치 하락, 구매력 감소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우려되고 있다. ♣